

## 규만생각(4) 노조선거에 임하는 조합원의 입장

다가오는 kt노조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도대체 어떤 상황 이길래 수십 년 어용의 무능한 노조집행부 하나 바꾸지 못하는 걸까? 조합원들은 진짜 노조에 관심이 없는 걸까? 자신들의 삶과 직결되는 임금 복지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노동조합에 관심이 없다고? 진짜?

아니다, 그게 아니라 조합원은 무서운 거다, 두려운 것이다, 지난 십 수 년에 걸쳐, 양심과 원칙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뚜렷하게 밝히고, 민주노조를 주장하거나 그에 동조하던 동료 조합원들이, 그 후 회사 측의 보복으로 이리 저리 발령 나고 쫓기듯 옮겨 다니며 힘들어 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봐 왔기에, 선거 때가 되면 괜히 쾅기는 것이다. 학습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각인되었고, 이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마저 선거 때, 전화하거나 만나거나 심지어 눈길만 마주쳐도, 외면하고 싶도록 그렇게 학습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그토록 많이 발생했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탈법 사례들은, 어김없이 고소, 고발로 이어졌지만,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기소중지, 무혐의 등등의 명목으로 부인되고 내팽개쳐졌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옳은 말과 주장을 하고도, 불이익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것을 지켜보며 함께 싸워주지 못하고 외면하며, 스스로를 탓해야 하는 조합원들은 마음속으로 울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더럽고 치욕스런 나날이었다. Kt의 봄은 정녕코 오지 않는 것인가?

아니다. 온다. 온다. 기필코 온다. 이미 슬슬 물 들어온다. 바야흐로 물때가 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은 변했다. 여태까지 그토록 안 되고 무시되던 것들이 소중한 가치로 반전을 기다리고 있다. 옳고 정의로운 것들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새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노조위원장출신 김영주 장관이 임명되고 노동부 적폐청산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 안건이 [부당노동행위] 척결이다. 조합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MBC 김장겸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전현직임원 6명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기륭전자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들어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자, 물때는 이렇게 바뀌고 있다.

적폐청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도 바뀌었다. 최순실 원죄로 발목잡힌 kt황창규 회장은 [부당노동행위] 1건이면 자리보전도 힘들 것이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회사에 충성한답시고, 이번에도 관례처럼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진정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 될 것이다. 이제 조합원만 일어서면 된다.

자고로 물 들어올 때, 배 띄우고 노를 저어야 한다. 이제 힘차게 노를 저어야 할 때이다